

당연한 세계, 낯설게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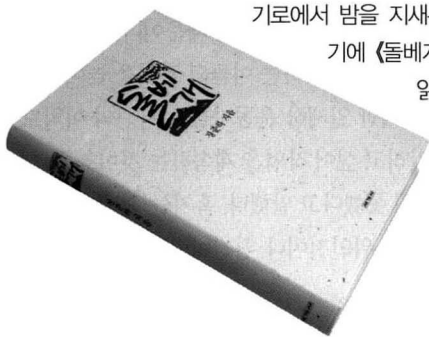
세상은 늘 '당연한 이치'로 돌아간다. 그러나 조금만 낯설게 보면, 당연의 세계는 늘 '당연하지 않은' 세계의 다름 아니다. 저자 정수복은 한국과 한국인을 당연한 시선이 아니라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를 시도한다. 저자가 말하는 문화적 문법이란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의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문화적 의미체계이다. 《한국의 문화적 문법》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위의 방향에 지침을 제시하는 '문화적 문법'의 기원을 찾아 가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인 셈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작업의 결과이다.

무위의 덕, 그래서 그리운 사람 장준하

함석헌 선생은 장준하를 일러 "장준하의 사람됨을 보면 구약의 아담 같은 데가 있다. 참사람이 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무위(無畏)의 덕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겁이 없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했다. 문익환 목사는 "온몸으로 민족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간 그의 뜨거운 가슴, 고요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몸가짐에 비겨보면 그의 사상의 평가 같은 건 검불과도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돌베개》 개정판이 나왔다. 그는 "나는 '못난 조상이 또다시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중언부언했다"고 하지만 "광막한 중원 대륙 수수밭 속에 누워 침 없이 마른입으로 몇 번이나 되씹었고 또 농땡이를 베개로 하고 동사의 기로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없이 울부짚었던 말"이기에 《돌베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다시 읽어야 할 책임에 틀림없다. **한민**



글_장동석 기자

'광기' 부렸던 열정적인 '천재'들의 문제적 내면 풍경

'인간'을 탐구하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이 또 있을까. 한겨레신문 책·지성팀장으로 있는 저자는 《지식의 발견》 《담론의 발견》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전에 냈던 책들은 '책'이 주인공이었다면, 《광기와 천재》는 '인간'이 주인공이다. 한계 상황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고 삶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던 문제적 인간을 대상으로 삼아 저자는 정치적 풍경, 문학적 풍경, 철학적 풍경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풍경에는 아돌프 히틀러, 세



르게이 니차예프, 조제프 푸셰, 문학적 풍경에는 장 자크 루소, 나쓰메 소세키, 프란츠 카프카, 철학적 풍경에는 비트겐슈타인, 마르틴 하이데거, 미셸 푸코가 등장한다. 저자는 "아홉 명은 대뜻값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광기와 천재를 실마리로 대뜻값으로 평가한 인물들의 열정적인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문화논쟁의 근대적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할 이유

저자는 현대를 사는 동양인들에게 동양의 문화적 전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준다. 위잉스는 동양과 서양을 모두 아우르는 지적 방대함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석학으로, 서양 정신세계의 기원과 구조뿐만 아니라 동양적 사유의 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근대화 이후 서구화에 매진해 온 동양이 서구의 눈이 아니라 동양의 전통과 가치체계를 간직하라고 주문한다. 자본과 과학의 힘에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굴복당한 동양은 자신의 전통이나 문화가 열등한 것이고, 망국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구의 문화가 사회의 병폐가 되는 근원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서양과 동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나 동양문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도식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동양문화가 위대하다거나 서구문화가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속단하지 않는다. **한민**



글_정윤희 기자

《한국의 문화적 문법》 정수복 지음 | 생각의 나무 | 600쪽 | 값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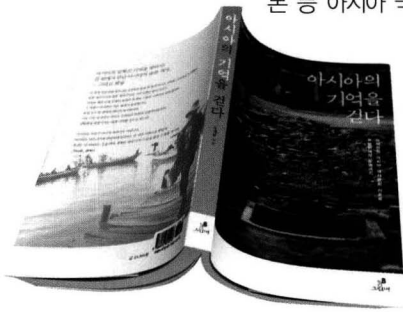
《돌베개》 장준하 지음 | 세계사 | 472쪽 | 값 17,000원

《광기와 천재》 고명섭 지음 | 인물과사상사 | 404쪽 | 값 16,000원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위잉스 지음 | 김병환 옮김 | 동아시아 | 183쪽 | 값 12,000원

아시아를 흔든 전쟁의 역사, 그 뒤안길 풍경

《메콩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느린 희망》 등의 여행기를 통해 아시아 및 제3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던 저자 유재현이 이번에는 아시아 역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뤘다. 섹스의 천국, 학살의 그림자, 미국의 힘으로 대변되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2차 대전 이후 역사, 문화적 변화상을 짚어낸다. “아시아는 지리가 아니며 역사이고 이념이다”라는 저자의 말은 아시아 속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역사적 진실이 무엇 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아시아는 지리가 아니며 역사이고 이념이다”라는 저자의 말은 아시아 속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역사적 진실이 무엇 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고독과 냉소 속에 스며든 ‘인간애’

2006년 《달콤한 나의 도시》로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정이현의 단편소설집이다. 이효석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타인의 고독》 《삼풍백화점》 《오늘의 거짓말》 등 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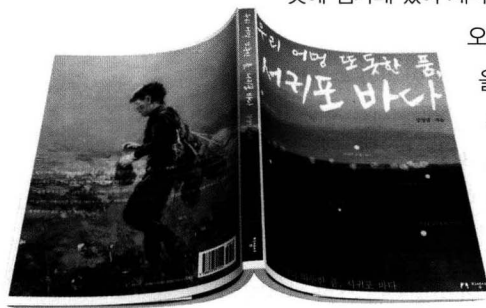
오늘을 사는 1970~80년대생의 고단하게 늙어가는 ‘청춘’을 위로하는 얘기들이다. 이 시대 중상류층의 삶을 대변하는 여주인공이 삼풍백화점 붕괴 때 친구



를 잃는 얘기를 그린 《삼풍백화점》이나 1991년에서 기억이 멈춰버린 동창과의 당황스러운 재회를 그린 《위험한 독신녀》 등은 작가 특유의 고독과 냉소 속에 스며든 ‘인간애’를 느끼게 한다. 작가 정이현에게 부족하던 1%가 채워진, 진화하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책이다.

서귀포 앞바다의 인간과 자연을 담다

제주도 서귀포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과 자연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책이다. 일반적인 여행 안내서가 아닌 제주 앞바다에서 50년을 살아온 저자가 개발 명목으로 변해가는 서귀포의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써냈다. 서귀포 역사와 바다 속 지형, 서귀포에 사는 물고기 등을 망라해 정보면에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제주사람의 입말체와 방언이 섞인 옛 이야기가 곳곳에 첨가돼 있어 재미있다. 부록에는 저자가



오랜 기간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직접 찍은, 제주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의 사진과 설명을 담았다. **출판사**

글 송보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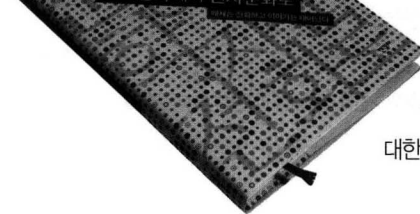
전자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찰

문학도에게 글쓰기의 도구로서만 유용성을 인정받았던 ‘컴퓨터’는 인간 소통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문학작품은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나누는 현재진행형의 얘기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매체의 진화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통구조를 진단하고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예술인 문학의 변화와 미래를 전망한다. 매체의 진화

와 문학의 변모라는 인문학적 주제를 논하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의 흥미로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시

인사이드와 드라마 《궁》, 게임 《리니지》와



귀여니 소설이 벤자민과 바르트의 사유를 통해 분석된다. 디지털 문화워기의 최전선에서 들려주는 전자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이다. **출판사**

글 이주연 기자

- 《아시아의 기억을 걷다》 유재현 지음 | 그린비 | 272쪽 | 값 13,900원
- 《우리 어머 또또한 품, 서귀포 바다》 강영삼 지음 | 지성사 | 216쪽 | 값 17,000원
- 《오늘의 거짓말》 정이현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28쪽 | 값 10,000원
- 《문자문화에서 전자문화로 : 최해실의 디지털문학노트》 최해실 지음 | 한길사 | 230쪽 | 값 12,000원